

우리 나라 대학의 학문풍토와 국내·외 박사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1. 교수채용, 외제선호와 무관한가?

교수채용이 있고 난 뒤 일간지의 광고란에서는 종종 해당 학기에 뽑은 신입교수들의 학력 및 경력 소개를 볼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채용 교수를 외부에 공개하여 교수 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 대학의 학술 상품 진열대에 얼마나 우수한 것이 선별되었나 하는 것을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낀다. 그것도 국내 일류대학 품질이 아니면 외제가 많을수록 그 대학이 빛난다는 것을, 심지어는 외제 일색으로 자기 대학의 우수 교원 확보를 홍보하는 수가 있다. 더욱이 외제의 경우에는 대개 최고가 미국산, 그 다음이 일본산, 유럽산, 중국산 등의 순서이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몇 년간 '교수신문'의 구체적인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아래에서 '95년도부터 '99년 2학기까지의 약 5년간에 걸쳐서 조사된 기사'를 발췌·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3년간 한국의 대학교수 가운데서 국외박사는 매년 약 2,000명씩 증가해 왔고' '95년도 2학기까지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총 30,754명이었는데, 그 중 국내박사는 19,789명, 국외박사는 10,965명이었다.¹

'95년도 1학기에 주요 27개대 신입교수 904명의 최종학위 대학의 소재국은 미국 308명(34%), 국내대학 353명(39%), 일본 56명(6%), 독일 46명(5%), 프랑스 15명(2%), 기타 27명(3%)이었다.²

'95년도 2학기의 46개 대학 508명의 최종학위는 여전히 미국 소재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국내 100명(24%), 일본 30명(7%), 독일 27명(6%), 프랑스 12명(3%), 영국 및 기타가 각각 8명(2%)이었고 국내에서 최종학위를 받은 교수 가운데 최종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전임을 맡은 경우는 14명으로 전체의 14%였다.³

'96년도 1학기에도 외국박사 증가추세가 여전히, 신입교수 중 최종 박사학위 소재국은 여전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박사학위 621명 가운데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입교수는

1) 다만, 부분적으로 인용자가 문맥에 맞춰 수정하였음을 밝혀둠.
2) 교수신문 1995년 9월 25일자 참조.
3) 교수신문 1995년 9월 25일자.
4) 교수신문 1995년 4월 1일자.
5) 교수신문 1995년 9월 25일자.

273명으로 44%에 이른다. 이에 비해 국내 245명(39%), 일본 40명(7%), 독일 27명(4%), 영국 8명(1%), 기타 21명(4%)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입교수 중 유학출신자 비율이 100%를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⁶⁾

'96년도 2학기 임용의 전체적인 특징은 외국 박사학위 선호 등 90년대의 신입교수 임용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임용에서 지난 학기와 차별되는 부분은 학문의 근친상간인 모교출신 비율이 크게 증대됐으며, 그것은 특히 서울대 등의 국립대에서 두드러졌다. 신입교수의 국가별 박사학위 취득 현황을 보면 외국박사의 수가 국내박사의 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박사 192명, 외국박사 234명이다. 외국박사는 미국 36.9% 일본 24명(5.6%), 독일 13명(3.1%), 프랑스와 중국 각각 7명(1.6%)이며, 유학출신 비율이 100%를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⁷⁾

'97년도 1학기의 교수 임용에서도 모교출신 선호 경향이 지속됐다. 외국학위 선호 역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9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419명(44.5%), 국외 522명(55.5%)이다. 이는 지난해 2학기(54.9%)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학위 선호도는 '95년 2학기(76%)와 '96년 1학기(61%)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외국학위 취득자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 376명(40%)으로 지난 학기(36.9%)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일본 46명(4.6%), 독일 42명(4.5%), 영국 18명(1.9%), 프랑스 15명(1.6%), 중국 8명(0.9%) 등의 순이다. 신규 임용자 중 93.7%가 외국박사인 대학도 있다.⁸⁾

'97년도 2학기 신입교수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미국 34.5%(152명)로 지난 학기 40.0%, '96년 2학기 36.9%보다 낮은 비율이다. 일본이 4.6%(22명)로 지난 학기

(4.6%)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독일(1.6%, 7명), 영국(1.4%, 6명), 프랑스(0.6%, 3명)도 지난 학기에 비해 대체로 낮아진 경향이다. 신입교수 임용 대학 중에서 외국학위 소지자를 88.9%를 채용한 대학도 있다.⁹⁾

'98년도 1학기 신규 임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7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외 54.5%, 국내 45.5%였다. '96년 1학기 39.0%, '96년 2학기 45.1%, '97년 1학기 44.5%, '97년 2학기 55.1%로 꾸준히 증가하던 국내박사 학위자들의 강단진출이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들의 국외박사 선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자칫 학문 후속세대의 해외진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박사학위 취득국은 미국 64.5%, 일본 13.7%, 독일 7.5%, 프랑스 4.4%, 중국 2.1%, 영국 1.4% 순이었다.¹⁰⁾

'98년도 2학기 임용에서도 지난 학기에 이어 국외 박사학위 소지자의 임용비율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97년 2학기, 한 때 국외박사를 앞질렀던 국내박사들의 대학진출은 상반기에 주춤한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국외박사의 대학진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전히 대학들이 국외박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임용자 전부를 외국박사로 채우는 등 여러 대학에서 외국박사 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외박사는 미국 67.6%로 지난 학기 64.5%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다음으로 일본 12.9%, 독일 5.8%, 프랑스 4.3%, 영국 3.6%의 순이었다.¹¹⁾

'99년도 1학기에는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임용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으나 지난 학기에 이어 국외 박사학위 소지

6) 교수신문 1996년 3월 25일자.

7) 교수신문 1999년 9월 23일자.

8) 교수신문 1997년 3월 31일자.

9) 교수신문 1997년 9월 29일자.

10) 교수신문 1998년 3월 23일자.

11) 교수신문 1998년 10월 12일자.

자들의 선호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국내 323명(48.0%), 국외 350명(52.0%)을 기록했다. 국내 박사학위자가 더 많이 임용되었던 지난 '96년 이후 줄곧 대학의 국외박사 선호도는 수평선을 그리고 있다. 학위 분포도는 미국 70.5%(227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일본 10.8%(38명), 독일 5.1%(18명), 영국 4.9%(17명), 프랑스 2.3%(8명) 순으로 나타났다.¹²

'99년도 2학기의 임용에서도 국외박사의 채용 비율이 국내 박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임용자 중 박사학위 취득자는 376명(81.7%)이며, 그 중에서 국내박사는 177명(47.1%), 국외박사는 199명(52.9%)으로 지난해 하반기 임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박사학위를 취득국별로 보면 미국이 38.0%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일본(6.1%), 독일(4.0%), 영국(1.9%), 프랑스·중국·독일(0.8%)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박사 학위를 대학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대가 16.2%로 삼반기에 이어 가장 많았다.¹³

2. '외국을 배우자!' 는 구호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

위와 같이 '95년도 1학기부터 '99년도 2학기 현재까지 5년간 우리 나라 대학에서 국내·외박사의 채용 비율의 문제와 국외박사학위 취득국별 순위 통계에서 보듯이, 외국의 학문에 우리 대학의 학술 시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예측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외국을 이해하고, 관련된 외국의 현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고 최신 학술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중요하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학계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과소 평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국내와 국외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분류와 분석의 방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는 국내와 국외가 쌍방적 무한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세계사적인 추세나 경향에 발맞추어 배워 나가는 '외국을 잘 배우자!' 라는 구호의 명분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다.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들과의 정보·지식면에서 환기(통풍)창을 마련하여 그들의 수준에 보조를 맞춰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첨단 분야일수록 더욱 그렇고, 어문학의 분야는 현지 유학이라는 것이 어찌면 필수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허겁지겁 외국의 새로운 것을 따라잡는 데도 숨이 찬 형편이니 해외 유학자들을 부단히 국내에 수용하여 국내의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장화의 무한 경쟁 논리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실정으로는 최대한 현대 세계학술의 수준이나 과학기술의 주된 흐름과 수준상의 격차를 좁혀 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쇄국 혹은 국수주의적 발상이란 '세상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다름 아닐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래를 지어 부를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남(외국)의 것을 착실히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은 어찌면 자명한 명제처럼 보인다.

지난 한때 미국이 일본에게 경제적 종속을 우려했던 것 즉, 1991년도 세상에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던 미국 CIA보고서에서 보듯이 외국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그대로 '힘'이 된다. 즉, "일본의 명백한 목표는 세계 경제를 제패하는 일이다. 미국인이 이 위협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일본의 문화와 이념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일본어를 읽고 이해하는 학자와 기업인을 대량으로 양성하지 않는 한, 위협은 깨닫지조차 못하는 가운데 지속될

12) 교수신문 1999년 3월 29일자.

13) 교수신문 1995년 10월 4일자.

것이다. 미국의 무지와 통찰력 결여에 의해 일본은 경제적 기습을 감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미국은 회복불능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외국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가늠케 해 준다.

3. '외제', '외제병'에 대한 서글픈 명상

이처럼 외국을 알자는 것은 일단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선진국의 자본주의 시장과 첨단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를 목조여 정신문화를 식민화하는 데 대해 아무런 반성없이 외국을 추종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학술문화가 황소개구리처럼 우리 학술의 자생력과 자신감의 씨앗들을 다 먹어치워 우리 학술의 건강한 자생적 생태공간을 잠식·파괴해 간다면 우리 학술의 토양은 외제라는 산성비로 해서 황폐화될 것은 뻔하다. 그 척박한 땅에 학문 후속세대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좌표를 잡아 학문을 해 나갈 것인가.

근대 이후 외제에 대해 내성과 항생력을 키우기 위해 발버둥쳐 온 우리 학술의 지조는 헌신짝처럼 내버려도 좋은가. 국내에서 인력을 키울 프로그램은 마련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외국으로, 외국으로 철학적 기초 없이 출가해 가는 인력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빗갈과 갈모양만 좋다고 무턱대고 우리 것은 애써 개발할 생각은 않고 안이하게 외제품만 수입해 올 것인가. 우리가 키워낸 다음 세대 학자들이 국내산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 값을 못 받고 무시당한다면, 결국 대학 등의 우리 학술계가 비싼 돈과 가까운 시간을 들여 해 온 일은 과연 무엇이었던 말인가.

우리 학술의 자생적 생태공간이 깨진 곳에 결국 외제종이 번식하여 또 하나의 외제 학술 생태공간 일색을 이루는 것은 옳지 않다. 신도불이의 주장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며 학술문화의 열거짜기를

시도한다면 철학적 기초 없이, 학술의 자생적 생태공간 마련으로 연결되지 않는, 외제 학술의 무조건적 수입은 설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짐을 지으려는 격임을 경계해야 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사실 '외제가 아니면 일류'이라는 사고는 우리 사회 지성의 내면에 우리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서글픈 식민적 의식의 낡은 초상화가 아직도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가짜가 섞여 있음에도 백화점 상품을 믿고 좋아하는 논리와 같다. 물론 백화점의 상품은 대부분 유명 상표이며 신뢰할 만하다. 제재 시장바닥의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처럼 기성의 인정된 상품을 씌우며 해서 위험도를 낮추자는 것은 일단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안이하고 소박한 발상이다. 자기 상품을 개발하는 데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여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겠다면 할말이 없지만, 적어도 대학은 미래의 우리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은 공장이자 백화점이어야 한다.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역할은 포기하고 외제품만 발빠르게 수입하여 진열하는 데 혈안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외제중독증이 심해지면 결국 외제가 아니면 구매욕이 떨어져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것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한 번도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원칙에 따라 창조적 행위를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컨대 밥을 먹을 때도 몇 번 씹어야 하는지 남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씹는 횟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학사회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거의 남(외국)이다. 늘 듣는 이야기이지만, 대학의 교육 제도를 바꿀 일이 있으면 서울의 유명대학은 어떻게 미국과 일본의 어느 대학은 어떻다는 식이다. 논문평가, 대학평가, 구조조정, 개혁, 심지어는 21세기와 미래, 국학까지도 외제가 없이는 논의가 잘 안 된다. 이처럼 우리의 학술시장은 만성 외제중독증이란 병력을 쌓아가고 있다.

4. 우리 학술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철학적 기초

우리는 왜 국내 상품을 믿지 않는 것일까. 이것을 묻고 따지게 되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른다. 실제로 국내의 교수들 중에는 본인이 지도한 제자의 품질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지도하기 힘들면 바로 외국으로 떠나 보내기 일췌였다. 만일 우리 상품을 만드는 데 자신이 있다면, 꼭 부족한 부분만 외국에 기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기술 개발하여 보완해 가면 된다. 특정 분야를 제외한다면, 국내에서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 문제의식을 갖고 외국에 가서 연수를 하면 된다. 학위가 문제가 아니다. 의식의 문제이다. 근본은 무엇일. 왜, 어떻게 배우는가에 있다. 어디서 배우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박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 얼마만큼 실력, 전문능력이 있느냐이다.

일단 우리 학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논리가 제약받는다라는 것은 시장을 더욱 병들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의 논리가 합작한 뿌리 깊은 근친상간이 있다. 학연, 지연, 혈연이 순기능을 할 때는 본인이 지도한 학자를 당연히 채용하지만, 역기능을 할 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사랑과 증오는 한 뿌리이다.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인간됨'의 문제 즉, 자기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가 주요 기준이 된다. 이렇게 구축되어 온 폐쇄 지역이 하루아침에 완전 자유의 땅으로는 바뀌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 자유로운 경쟁의 논리를 막는 것을 주도해 가는 쪽은 속칭 일류대들이다. 일류대가 그 대학 출신을 주로 채용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다른 가문 태생의 학자들을 못 믿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만일 이런 논리에 충실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아무리 찾아도 잠종교배를 할 만한 대상이 없고 자기 혈통의 순종이 아니면 수입을 해서라도 더 나

은 것을 찾겠다는 말이다. 물론 이점은 꼭 일류대에 국한할 수도 없다. 우리 나라의 대학 도처에서 이 변형 모조품들이 발견된다. 하버드대학에서 그 대학 출신 학자들 다 채워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는가? 순종교배만 하여 혈통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고집한다면 결국 정상적인 학문의 후속세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자유롭게 공평하게 발굴하여 채용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존중되지 않는다면, 학벌·학연·지연·혈연과 연대보증식으로 선호되는 일류·국외박사 제국주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차단하거나 제동을 걸 방법은 없다. 우선 보석을 감정할 눈과 의식을 갖자. 그래서 장래 학문시장이 투명해지고 우리 자신의 상품 개발 및 유통 과정이 신뢰할 만하다면 맹목적인 외제 선호는 점차 지양·약화될 것이다. 이런 반성이 없다면, 우리의 학술 시장에서 그 동안 폐쇄 공간을 유지하며 자기개발과 경쟁력 없이 외제 연속을 자처하여 자생력을 상실한 부문에서는 그 종속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수렁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학의 학문 풍토 속에서 양식(叢殖)되고 있는 해외박사 선호의 흐름은 결국 우리 학술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통한 장기적 안목의 교정 노력이 있을 때만 치유·극복될 수 있을 것 같다. **한**

최재묵

영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츠크바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경대 및 하버드대에서 객원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영남대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양명학』, 『나의 유교 읽기』, 『실학사상과 근대성』(공저),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공저), 『양명학과 공생·동심·교육의 이념』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